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민농아교회 성도들은 귀로 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충만하다.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천국도 자신의 믿음과 수고로 침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배운다

나를대로 충성한다고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구원도 못 받고 죽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질병, 사고 걱정 없이 살아요~”

77세에도 눈이 좋아지는 역사를 체험한 라영자 권사와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의 감동을 회상하는 세르게이 박사 간증.

만민뉴스

제683호 2015년 4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과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소원하던 아기를 갖게 됐어요”



- 코손 잉공 집사
(태국 치앙마이만민농아교회)

타교회에 출석하던 중, 태국만민농아교회의 부흥 소식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페낭 만민농아교회 창립 기념예배에 참석해 은혜받고 치앙마이 지역 교회 개척을 요청했지요.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불임이었던 제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아 결혼 4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다니요!”



- 레우 카 록 형제
(말레이시아 셀레오만민농아교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는데 2014년 3월 수요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던 중 양쪽 귀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무서웠습니다. 차가 다니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식사하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매우 낯설고 이상했지요. 2015년 3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첫날,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뒤에는 이전보다 더 잘 들립니다.

“딸아이가 화상을 치료받았어요”



- 긴겔하젤브라드 집사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전가뱀비로 국을 끓이던 중 딸아이가 전깃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아이의 배, 왼쪽 허벅지와 팔에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3도 화상이며 엉덩이에서 살을 떼어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깜짝 놀라며 “분명 3도 화상이었는데 괜찮으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만민농아 10개 지교회 성도들의 행복 찾기

전 세계 1만여 개의 지·협력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농아 성도로만 구성된 해외 지교회도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있는 만민농아교회 성도들은 들을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치유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는 2008년 12월에 개척했다. 담임 지정훈 목사가 인터넷 화상을 통해 해외 농아들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천국'과 '지옥' 설교를 전함으로써 은혜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다. 그 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수화 동시 화상으로 전도해 만민농아지교회 설립이 계속 이뤄졌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4개 지역 페낭, 말라카, 사라와크, 살

레오와 태국 6개 지역 핫타이, 수라타니, 트랑, 푸켓, 치앙마이, 치앙라이에 만민농아지교회가 있다. 이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관심과 지원으로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화상방송을 송출하고 한국 농아인선교회에서 촬영된 내용을 재송출하면 그것을 받아 모니터에 띄우는 방식이다. 그 결과 성도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어 방황하거나 교회는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설교를 통해 은혜받고 기도생활을 시작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회와 영적 흐름을 함께 타며 믿음의 반석과 영의 마음을 이루기를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이가 영적 사모함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제단인 만큼 화상을 통한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에이즈를 비롯해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있으며, 성도들 가운데 수십 명이 청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조셉 림벵필 형제는 시력이 회복됐고, 훈이 워튼 성도는 잉태의 축복을 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도 농아로서 농아 선교에 뜨거운 비전을 품은 지정훈 담임목사는 “처음엔 성도들이 영적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오해도 많았습니다. 또 예배 때 당회장님의 설교에는 다양한 실례가 등장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수화 단어가 없어서 수화를 만들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의 고백을 문자메시지로 전해 주었다.



만민농아지교회 성도들은 네프시스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함께하고(①, ④), 큰 행사 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영적 힘을 공급받는다(②, ③), 또한 자체적으로 수련회와 기독교 절기 행사(⑤, ⑥)를 가지며 서로 은혜와 행복을 나누고 있다. 성도수가 계속 늘어 곳곳에 지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에 거주하는 농아들도 소문을 듣고 화상으로 함께 말씀의 꿀을 먹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고 있다.

네 것이 되리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 17:14~18)

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번성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자기 몫을 받았지요.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두 지파 반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비례에 따라 하며 어떤 토지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인지는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민 26:54~56). 이것이 각 지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2. 요셉 지파의 불평과 믿음 없는 고백

그런데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 자손이 원래 한 지파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두 지파를 이룬 만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수 17:14).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는데도 자신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니 여호수아가 제한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수 17:15) 곧 경작할 땅이 부족하면 삼림을 개척해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 자손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수고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과 자신들이 큰 족속이라 해서 섬김받으려는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점령한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믿음 없는 말까지 했지요(수 17:16).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안되는 큰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없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 스스로 싸워서 기업을 취하라 하니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며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며 나갈 때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경역을 넓힐 수 있음을 당부하지요(수 17:17~18).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수 16:10, 17:12~13).

그 결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져서 틈을 보이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괴롭게 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이방 풍속을 접함으로 범죄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3.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 외에 모든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자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맨 나중에서야 기업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얻은 기업인 에브라임 산지 ‘답낫 세라’는 산기슭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성읍 또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선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수일 뿐 아니라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기고 양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몫을 받았습니. 이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와 각종 예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신 33:10).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맡은 레위 지파가 세상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기 원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도 거주할 집이 있는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판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는 몇몇 성읍을 따로 구별해 받은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흠어져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위치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하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항상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법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권능으로, 혹은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넘겨 어려운 장벽이 있어도 법사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능히 모든 축복을 열매로 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 등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남부지역은 물론 북부지역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의 거민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대략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온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성읍들뿐 아니라 아직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성읍들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남아 있는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다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1.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아홉 지파 반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받았습니. 모세 당시에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기르기에 적합한 것을 보고 두 지파 반의 백성은 모세에게 요청해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역시 예외적으로 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려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조차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써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행 4:32~35).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탐심으로 인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돼 베드로를 속이므로 결국 저주받아 죽은 것을 볼 수 있다(행 5:1~11).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깨우쳐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가 쌓이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질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까?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이 나타나는 사도를 속인 것은 베드로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엄청나게 큰 죄이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멸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주신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 해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놓친다면 그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림으로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저주로 그 즉시 혼이 떠난 것을 볼 때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까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다.

베드로와 같이 권능의 사도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화인 맞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배움으로 무엇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히 10:26-27).

둘

권능의 사도에게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른다

보혜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저주하자 그 즉시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보장해 주신 것이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쓰시는 분들을 통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가 나타났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확실히 믿으며,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분명 하나님 말씀임을 보장케 해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됨으로 그 행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 속이려고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정녕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셋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다.

성경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곧 죄를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며(요일 2:15),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정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있고 그 아들, 즉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요일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Thank You

5월, 감사해요
2015.4.26~5.02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축복 6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창세기 강해 48~52
- 요한계시록 강해 70
- 공부 잘하는 비결 1~7
- 지옥 15~17 ■ 일곱교회 20~24
- 3차 영혼육 1~5 ■ 사랑장 11~15

GCN TV 설교

- 육적인 사랑 2 (이수진 목사)
- 때에 맞는 말 (이미영 목사)
- 기도 5 (이희선 목사)
- 마음 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10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8 (김수정 목사)
- 새로운 피조물 (주현권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5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
- English 4 ■ 옛날 옛적에 7
- 즐거운 요리 19 ■ 내 마음의 찬양 10
- 흥겨운 소리 6 ■ 창조와 과학 8
- 모두 드려요 27 ■ 뷰티플러스 2

해외성화 프로그램

- 페루 연합대성회 2
- 회상 6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세르게이 마르티노크 박사
(63세,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만민교회)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2006년 7월 초, 저는 길을 때마다 척추 신경에 압박을 느끼며 통증이 심해서 30미터 이상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뉴욕 연합대성회 준비 차 한국에서 온 김진홍 장로님이 방문해 반갑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불치, 난치병을 가진 많은 사람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는다라는 것이었지요. 아울러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며 당회장님을 감사로 곧 뉴욕 연합대성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장로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받은 즉시 통증이 사라졌고 이후 매일 먼 거리를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으니 아주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뉴욕 연합대성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마침내 2006년 7월 27~29일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연합대성회가 개최됐고, 감사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했고 희열이 넘쳤지요. 이후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님의 권유로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과 달라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 이내 충만함이 떨어졌지요. 창조에 관심이 많아 관련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엉뚱하게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박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됐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권능의 종 이재록 목사님을 제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우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연락해 차의 보상 문제를 놓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결과, 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만민에게 전하시는 성결의 복음을 대하면서 새롭게 영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행해나감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참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권능의 기도로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시력도 좋아져 작은 글씨도 아주 잘 보여요”

라영자 권사 (77세, 3대대 30교구)



따뜻한 봄날, 라영자 권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딸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넷째 유옥희 집사, 일곱째 유숙희 집사, 다섯째 유은숙 권사, 여섯째 유영희 집사)

1993년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제 무릎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발걸음이 무겁고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인대가 다 닳았고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지요.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십견까지 와서 양쪽 어깨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누군가 저를 끈으로 묶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1월, 다섯째 딸인 유은숙 권사의 집 근처로 이사해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궁이 약해 세 차례나 유산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 결혼 3년 만에 예쁜 손녀를 낳았지요. 이뿐 아니라 매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들으니 믿음이 됐습니다. 저의 퇴행성관절염과 오십견 증세도 호전돼 갔지요.

그러던 1996년 5월, '제4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강사인 당회장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기도받을 성도가 많은데 나라도 당회장님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찬양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지요.

그 순간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팔이 자유롭게 움직여졌으며 어느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벼웠고, 무릎을 꿇어보니 자연스럽게 꿇어졌지요. 퇴행성관절염과 오십견 증세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온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 아주 행복했

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만민뉴스'를 이웃과 주민들에게 열심히 전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요.

구역장에 이어 조장의 사명이 주어졌고, 2003년에는 부흥의 열매를 맺어 연말에 상을 받고 그 이듬해에 성지순례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또 한 번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 뒤편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칼로 찌르는 듯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이었지요.

마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GCN 방송으로 생중계 되므로 저는 서울에서 화상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즉시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경 없이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일만큼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좀 떨어진 거리를 볼 때는 일반 안경을,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된 물)을 눈에 뿌리고 예배 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꾸준히 받은 결과, 작년부터는 돋보기 없이도 책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설 만남 시 성도들과 함께 당회장님께 전체 기도를 받은 뒤에는 시력이 더욱 좋아져 일반 안경마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또한 작은 글씨로 기록된 성경도 아주 잘 보여 저는 성경과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요.

이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3-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9196-3927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5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익정부지성전 경기도 익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